

경제

“기업 이익, 중소기업 그림의 떡”

1년만에 가계대출 광주 10.5% 증가... 은행권은 감소

‘대·중기 상생협약’서 중소기업 임원들 불만 쏟아져

납품물량 축소·단가 인하 등 대기업 실리만 챙겨

극심한 경기침체 속에서 국내 대기업들이 울린 사상 최고 실적이 대기업들의 잔치가 아닌, 중소기업들까지 연결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불공정 관행이 여전하다는 중소기업들의 애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17일 광주 센트럴호텔에서 ‘광주·전남 중소기업 상생협력회의’를 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실질적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삼성광주전자, LG이노텍, 엠코테크놀로지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이날 국내외 경기침체 속에서 대기업의 납품물량 축소와 납품단가 인하 요구 때문에 경쟁력 유지와 적정 이윤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중소기업인들이 토로한 어려움은 대기업의 생산원가 인하 요청 및 납품 모델 수시 변동, 하도급 대금의 지체 등이다. 대기업의 일방적인 가격 결정에 의한 단가 인하 등이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대기업이 제품 생산에 앞서 모니터링을 위한 샘플 검사를 의뢰하는 반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지불하지 않는다”면서 “샘플 검사 설비의 고장이나 교체 등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에게만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납품단가 인하”에 대한 고민도 여전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원자재 가격 인상은 반영하면서도 임금인상, 환차손 등으로 인한 손실을 떠넘기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이런식으로 이익을 남기기가 어려워 수 제조원가에 업종별 표준 임금 반영 비율을 만들어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인력난을 호소하는 업체도 많았다. 중소기업의 경우 고급 기술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만큼 대기업이 협력

업체의 경쟁력이 대기업의 경쟁력을 감안, 기술력을 갖춘 인력을 파견, 협력업체의 컨설팅 뿐만 아니라 기술력 향상을 지원해달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강영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의 납품 단가 인하로 달성한 이익 대부분을 대기업이 차지하고 중소기업이 출혈하듯도둑 방지하면 산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가져온다”면서 “중소기업이 일정한 이윤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해 나가고 필요하다면 하도급사업 지원사업조합 설립 등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산학협력동원구원 박성수 원장은 “하도급 기업의 적정한 이윤 보장, 기술이전, 생산단가 보장 등 중소기업이 경영 안정을 누릴 방안이 필요하고 대기업과의 정책적 협의를 할 수 있는 기구 설립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지역민 2금융권 대출 크게 늘었다

1년만에 가계대출 광주 10.5% 증가... 은행권은 감소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가계대출을 위해 주로 상호저축은행과 신협 등 제2 금융권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10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가계대출 잔액은 광주가 11조5천282억원, 전남이 9조7천8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해 10월보다 광주가 1.6%인 1천880억원, 전남이 1.0%인 1천500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광주가 6조5천975억원으로 1년전에 비해 2천820억원(-4.0%), 전남이 4조1천108억원으로 280억원(-0.6%) 줄었다.

반면 저축은행과 신협, 상호금융(단위 농협) 등 비은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광주가 4조9천308억원으로 1년전에 비해 10.5%인 4천690억원이 급증했다. 전남도 5조5천978억원으로 지난해 10월보다 1천330억원(2.4%)이 증가했다.

가계대출이 소폭 증가한 가운데

행권 대출은 줄고 비은행기관 대출이 늘어난 것은 그만큼 지역민들이 금리가 비싼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렸다는 것을 뜻한다.

전체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광주가 58.0%(6조6천879억원), 전남이 34.6%(3조3천688억원)를 차지했다.

한편 10월말 현재 국내 가계대출 잔액은 542조원으로 올 들어 모두 26조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11월 어음부도율 급증

광주·전남

11월 중 광주·전남 지역의 부도업체가 늘면서 어음 부도율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발표에 따르면 2009년 11월 중 광주·전남의 어음부도율(금액 기준)은 0.39%로 전월의 0.27%에 비해 0.12%포인트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지역이 0.46%로 전월보다 0.13%포인트 올랐고 전남 지역도 0.30%로 0.09%포인트 상승했다.

부도 금액은 110억9천만원으로 전월의 88억9천만원보다 22억원이 증가했고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만 13억7천만원이 감소했을 뿐 나머지 건설업(14억6천만원 증가), 서비스업(16억8천만원 증가) 등 대부분 산업에서 부도금액이 증가했다.

신규 부도업체 수는 11개로 전월의 8개에 비해 서비스업에서만 3개 증가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그냥 먹었다간 큰 코 다칠라 17일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열린 ‘2009 국민건강 위해물질 전시회’에서 관람객들이 세관 관계자로부터 발기부전 치료물질 함유인 주류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광주상의 상근부회장

연령제한 70세로 연장

광주상공회의소가 공식인 상근부회장 연령제한을 7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정관 개정안과 내년도사업계획안을 마련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17일 ‘제2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2010 사업계획’등을 의결했다.

상회의 이날 회의에서 공식인 상근부회장 임명과 관련, “현재의 연령 기준으로는 능력을 갖추고 중앙에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사를 선정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수렴해 만 63세인 상근부회장 연령 제한을 70세 미만으로 완화하되,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회의 또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자문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연수사업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새해 주택대출 금리기준 변경

CD→은행 평균조달금리

새해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가 현행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서 은행권 실질 자금조달 금리로 바뀐다.

17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내년 1월부터 각 은행에서 조달금리 자료를 제출받아 정기적으로 은행권 평균 조달금리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회는 은행채, CD, 정기예금 등 은행의 자금조달원 가운데 신규취급액의 가중평균금리를 주 단위로, 여기에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예금까지 포함한 잔액의 가중평균금리를 월 단위로 공개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물 중 하나를 기준금리로 삼아 은행별 상황과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가산금리를 붙여 최종 대

출금리를 결정하게 된다.

연합회는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가 은행권에 조속히 확산될 수 있도록 오는 21일 각 은행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내달 중 새 기준금리를 공표하기로 했다.

금리변동 주기는 현행 CD 연동이 3개월인데 비해 6개월 혹은 1년으로 길어질 전망이다. CD는 단기상품인데 비해 은행의 다른 조달수단은 1년 이상 장기상품이 많아 금리변동 주기를 짧게 가져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이 반영되기 때문에 CD를 기준으로 할 때보다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의 변동성도 완화된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저소득 과지출’ 잡아낸다

국세청 시스템 개발

변호사 B씨는 최근 5년간 종합소득액을 3천700만원으로 신고했으나 이 기간 5억3천600만원을 지출했다. B씨는 시가 15억원의 주택에 살며 고급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녀 2명을 미국에 유학 보내고 해외여행도 32차례나 다녀왔다.

국세청은 이처럼 소득이 높지 않은 데도 과도한 지출을 하는 탈루 혐의자를 쉽게 적발할 수 있는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PCI 분석시스템)’을 개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부터 활용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해 개인의 일정 기간의 신고소득과 재산

증가, 소비지출액을 비교·분석해 탈루 혐의 금액을 찾아내는 것이다.

국세청은 우선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현금수입업종과 고소득 자영업자 위주로 숨은 세원을 발굴하는 데 힘쓰고 점차 일반 업종으로 시스템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탈루 혐의 금액이 많은 사업자를 ‘숨은 세원 관리대상자’로 선정해 관리하고 신고소득에 재산증거 및 소비지출 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면 세부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ASSET KOREA since 2005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062)236-3400. Real estate listings for various districts including Gwanak, Yongsan, and Gwangju.

수완지구 롯데마트앞 임대. Mellistar 빌딩.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a building near Lotte Mart in Suwansong, featuring 7 floors of commercial space.